

문화재청 공고 제2020-30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0. 30.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제639호 (1978.12.7.)	기사계첩 (耆社契帖)	화첩 1첩, 내함 1점, 호갑 1점, 외래 1점	홍**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諺解) 卷上一之二	1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1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	경진년 연행도첩 (庚辰年 燕行圖帖)	1첩	명지대학교 (명지-LG한국학자료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4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1좌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5	‘미륵원’명 청동북 (‘彌勒院’銘 金鼓)	1구	대한불교조계종 등구사
6	말모이 원고 (말모이 原稿)	1책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7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14책 · 한글학회 소장 : 8책 · 독립기념관 소장 : 5책 · 개인소장 : 1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책 : (사)한글학회</li> <li>● 5책 : 국유(독립기념관)</li> <li>● 1책 : 감**·감**(감**)</li> </ul>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대상 : 총 4건

지정·등록 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예고사유
보물 제639호 (1978.12.7.)	기사계첩 (耆社契帖)	1첩	홍**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 (2012.12.24.)	말모이 원고 (말모이 原稿)	1책	국유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지정 예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20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8책	(사)한글학회	위와 같음
국가등록문화재 제524-2호 (20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5책	국유 (독립기념관)	위와 같음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기사계첩(耆社契帖)

- 현 지정현황 : 보물 제639호(1978.12.7.)
- 명 칭 : 기사계첩(耆社契帖)
- 소유자(관리자) : 홍\*\*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수 량 : 화첩 1첩, 내함 1점, 호갑 1점, 외곽 1점
- 규 격 : 화첩 전체 53.3×37.5cm, 외곽 46.5×63.3×11.5cm, 내함 41.0×56.0×5.3cm, 호갑 접은상태 59.5×57.5cm, 호갑 펼친상태 117.0×105.8cm
- 재 질 : 비단에 채색(화첩), 목재(곽, 함), 호갑(직물, 종이, 가죽)
- 형 식 : 첩(帖)
- 제작연대 : 1719~1720년(숙종 45~숙종 46)
- 제작자 : 김진여(金振汝),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倣), 이이방(李義芳) 등
- 사 유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전례를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기로소에서 주관한 계첩(契帖)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기록화이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던 기관이다.

행사는 1719년에 실시되었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1720년(숙종 46)에 완성되었다. ‘기사계첩’은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되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계첩’(국보 제325호)을 포함해 5건이 알려져 있다.

지정예고 대상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墜, 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景賢堂)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金樛, 1653~1719)의 발문, 각 행사의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상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기사계첩’에서는 볼 수 없는 제1-2면의 “만퇴당장(晩退堂藏)”, 제53-54면의 “전가

보장(傳家寶藏)” 글씨는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 사람인 홍만조(洪萬朝, 1465~1725)의 소장품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내용은 풍산홍씨 문중에 대대로 보존되어 온 전승 경위를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계첩을 보호하고 있는 내함(內函), 호갑(護匣), 외궤(外櫃)가 일괄로 온전하게 남아 있는 사실은 조선시대 궁중회화와 관련된 유물 중 매우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유물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 내함, 호갑, 외궤는 형식과 제작기법 등으로 보아 계첩과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왕실의 봉과(封裹) 방식을 알려주고 세부적인 공예 제작 기술에 대해서도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므로 함께 지정할 필요가 있다.

‘기사계첩’은 숙종의 기로소 입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고 후에 고종(高宗)이 기로소에 입소할 때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제작시기 및 제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하며, 기로신들의 친필(親筆) 시문과 더불어 그림은 높은 완성도와 화격(畫格)을 갖추고 있어 현존 하는 궁중회화를 대표할 만 한 예술성도 갖추었다. 계첩과 동시기에 같이 만들어진 함(내함, 호갑, 외궤)도 공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함께 국보로 함께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보물 지정 예고】

###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一之二)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一之二)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6.2×17.0cm(반곽 19.8×13.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酉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5년(세조 11) 경
- 사 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는 중국 당나라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의 소초본(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65년(세조 11)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을유자로 인출된 판본은 활자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484년(성종 15)에 갑진자(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서 사용해 현존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더욱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완질(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전래본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동일한 을유자본 가운데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몇 곳에 책의 일부가 전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는 전래되는 판본이 적은 귀중본으로서, 15세기 국어학(國語學)과 서지학(書誌學) 및 금속활자 인쇄사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8.0×19.0cm(半郭 21.8×14.6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1년(성종 12) 추정
- 사 유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1481년(성종 12년)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1420~?), 조위(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砮, 미상) 등이 왕명을 받들어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두공부시(杜工部詩)』에 대해 여러 주석을 참고해 내용별로 분류하고 한글로 번역해 편찬한 책이다.

당시 성종의 명에 따라 간행된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송대 강서시파의 폐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두보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국가 공인의 표준화된 체계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두보의 시를 통해 문학과 도학(道學)의 상관성을 밝혀 도학의 발전에 일조하고 원작에 충실해 우리말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번역한 한글번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인쇄사적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을해자 뿐 아니라 을해자 한글 활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이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간행한 번역시집으로서, 을해자(乙亥字)와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인출된 서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정예고 대상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을해자(乙亥字)와 을해자 병용(併用) 한글금속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서 그 중 권11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가운데 권11만이 동일 권차로서 유일하다. 이미 지정된 권11에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하고 있으나, 지정예고 대상에는 해당 부분의 <절서(節序)>의 「대세일(大歲日)」·「입춘(立春)」·「원일기위씨매(元日寄韋氏妹)」·「원일시종부(元日示宗武)」·「인일기두이습유(人日寄杜二拾遺)」·「추수고고촉주인일견기(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인일양편(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반치음(半齒音, △), 방점(傍點), 아음(牙音, ㅇ)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

‘분류두공부시(언해)’가 완질이 전하지 않고 동일한 권차가 없다는 희소성과 초기 한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 □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
- 소유자(관리자) : 명지대학교(명지-LG한국학자료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LG한국학자료관
- 수 량 : 1첩(21폭)
- 규 격 : 표지 52.9×31.9cm, 펼침면 전체 52.9×63.4cm, 화면 46.0×55.0cm
- 재 질 : 종이에 수묵채색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61년(영조 37)
- 사 유

‘경진년 연행도첩’은 1760년 11월 2일 한양을 출발해 이듬해 1761년 4월 6

일 돌아온 경진동지사행의 경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화첩으로, 영조의 어명을 받은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화가를 데리고 직접 현장을 찾은 심양관 옛터, 북경의 문묘 및 이룬당 등 유교 사적, 산해관 일대를 그린 그림, 건물 안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그림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跋文)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21폭으로, 영조어필→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심관구지도 발문→문묘도(文廟圖)→이룬당도(彝倫堂圖)→선사묘전내급동서무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문묘도 발문→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역대제왕묘도 발문→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산해관도 발문 순으로 수록되었다.

수록된 그림은 크게 산수를 중심으로 한 실경산수화, 건물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궁궐도로 나뉜다. 조선왕실의 궁궐도에서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俯瞰法)과, 새로운 계화(界畵)의 화법인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또한 18세기 중반 궁중기록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옥색을 사용해 궁중회화로서 품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작자는 수행화원이었던 이필성(李必成, 18세기)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진년 연행도첩’은 제작 목적과 시기가 분명할 뿐 아니라,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영조 어필이 포함되었고, 그림과 관련한 배반도 및 발문으로 그림의 이해를 충분히 돕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체감이 두드러진 18세기 중반 궁중회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작품의 성격 측면에서도 조선 후기 시대상과 정치, 외교, 문화 등의 양상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의의 또한 탁월하여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 현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1979.1.25.)
- 명 칭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길 313, 봉암사
- 수 량 : 1좌
- 규 격 : 상 높이 539.6cm, 무릎 폭 502.6cm
- 재 질 : 석조
- 형 식 : 용화수(龍華樹) 가지를 들고 있는 마애미륵여래
- 조성연대 : 1663년(현종 4)



○ 발 원 자 :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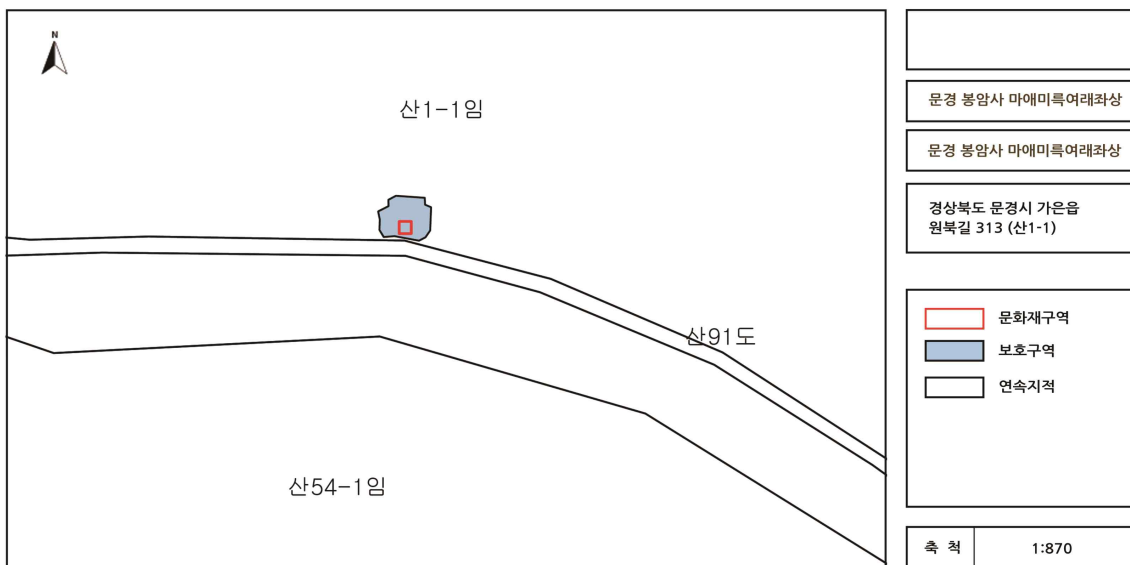
○ 지정구역 면적 : 19.89m<sup>2</sup>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임야	14,224,846	19.89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계				<b>19.89</b>				

○ 보호구역 면적 : 301.47m<sup>2</sup>

연번	소재지 /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임야	14,224,846	301.47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계				<b>301.47</b>			

○ 지정도면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사 유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1663년(현종 4)에 제작된 마애불로서, 경북 봉암사 옥석대(백운대라고도 함)에 위치해 있다. 제작시기와 주관자에 대

해서는 풍계 명찰(楓溪 明察, 1640-1708)의 문집 『풍계집(楓溪集)』에 수록된 「환적당대사행장(幻寂堂大師行狀)」을 통해 확인된다. 명찰은 17세기 승려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의 제자로 이 책에 환적당이 주관해 마애불을 조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환적당 의천은 1630년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여 88세 되던 1690년에 해인사 백련암에서 입적했다. 환적당이 봉암사에서 처음 수행한 것은 60세(1662년)부터 61세까지로, 행장에 의하면 백운대에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조성하고, 사적비를 세웠으며 환적암(幻寂庵)을 지었다고 한다.

보살좌상은 높이가 539.6cm, 너비가 502.6cm 정도이며 머리 주변을 깊게 파서 광배 형상을 만들고, 위는 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얇은 부조로 처리했다. 머리는 소발(素髮)이고 둥글고 가름한 얼굴에 오뚝한 콧날, 부드러운 눈매, 단정히 다문 입 등이 조화를 이룬 인상이다. 목에는 삼도(三道)를 열게 표현했고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通肩)이며,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균의와 이를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었고, 주름은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며 절제감 있게 새겼다. 앉은 모습은 길상좌(吉祥坐)이며, 노출된 오른발은 불상의 크기와 넓은 무릎에 폭에 비해 작은 편이다.

특히 얼굴과 자세, 착의법 등 세부표현에서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2)을 비롯하여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년),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8년), <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1693년) 등 17세기 괘불에서 보이는 표현요소를 찾아 볼 수 있어 불화와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 불상의 수인(手印)은 용화수인(龍華手印)으로, 두 손으로 긴 다발형의 꽃가지로 쥐고 있는 모양이다. 1663년이라는 뚜렷한 제작연대를 염두에 둘 때 마애불 도상이 확인된 기준작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문헌을 통해 제작시기와 제작동기, 발원자, 도상 등에 대해 고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마애불이라는 점, 조선 후기 마애불 연구뿐만 아니라 미륵불상의 도상 연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사실적인 조각수법, 당대 불화와 연관성이 있는 창의적 표현 등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 ‘미륵원’명 청동북(‘彌勒院’銘 金鼓)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미륵원’명 청동북(‘彌勒院’銘 金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등구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축동길 7-40, 등구사
- 수량 : 1구
- 규격 : 전체 지름 53.2cm. 당좌 구경 8.8cm.  
 앞면 내구경 22.4cm. 중구경 35.7cm. 외구경 52.2cm.  
 앞면 당좌 지름 8.8cm. 뒷면 내경 40.7cm. 측면폭 10.5cm.  
 두께 : 고면 4.3mm, 측면 4.7mm, 구연부면 4.8mm.
- 재질 : 청동
- 형식 : 반자형 금고
- 조성연대 : 1190년(고려 명종 20)
- 사유

‘미륵원명 청동북’은 측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明昌 二年 庚戌年)을 통해 1190년(고려 명종 20) 미륵원(彌勒院)에 걸기 위해 제작한 금고(金鼓)임을 알 수 있다. ‘미륵원’은 충남 공주에 있었던 인제원(仁濟院)의 후신(後身)으로, 고려시대 잠시 운영되는 동안 사용되었던 사찰 명칭으로 보이며,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될 당시에는 다시 원래의 명칭인 인제원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북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자 범음구(梵音具)인 청동제 금고(金鼓)로서, 금구(禁口), 반자(盤子), 쇠북 등으로 불리며, 공양(供養)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을 때 주로 사용한다. 현존하는 청동북은 공명구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미륵원명 청동북은 뒷면이 뚫려 있는 형식으로, 이를 반자(盤子, 飯子, 半子, 判子, 般子)라고도 한다.

3개의 뉴(鈕)를 가진 전형적인 고려시대 청동북으로, 내구(內口)에는 16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당좌(撞座)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당좌 안에는 14개의 연과(蓮顆)가 양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표면이 다소 마모되어 원래 금속 색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지만, 얇게 도드라진 양각으로 표현된 연꽃잎들의 배치가 균형감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기의 청동북 중에서 비교적 큰 크기의 대형 청동북이며, 문양의 조각 솜씨가 좋고 형지 및 주조 후 수리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확실한 제작 연대와 명칭, 발원자와 사찰명 등이 확인되는 귀중한 작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 말모이 원고(말모이 原稿)

- 현 등록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2012.12.24.)

- 명 칭 : 말모이 원고(말모이 原稿)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책(표지 제외 114장)
- 규 격 : 원고지 판광 18.4×13.5cm, 전체 23.7×17.2cm
- 재 질 : 종이(미농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본(6침), 원고지
- 조성연대 : 1914년 경
- 사 유

‘말모이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는 학술단체인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주관으로 한글학자 주시경(1876~1914)과 그의 제자 김두봉(1889~?), 이규영(1890~1920), 권덕규(1891~1950)가 집필에 참여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사전 ‘말모이’의 원고이다. ‘말모이’는 말을 모아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날 사전을 의미를 하는 순우리말이다. 주시경과 제자들은 한글을 통해 민족의 얼을 살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말모이’ 편찬에 매진하였다.

‘말모이 원고’ 집필은 1911년 처음 시작된 이래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191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본래 여러 책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ㄱ’부터 ‘갈죽’까지 올림말(표제어)이 수록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240자 원고지에 단정한 붓글씨체로 썼고 ‘알기’, ‘본문’, ‘찾기’, ‘자획찾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알기’는 범례에 해당하는 6개 사항을 표시하여 괄호 속에 품사를 제시하였으며, 뜻풀이는 한글 또는 국한문을 혼용해 서술하였다. ‘찾기’는 색인 본문의 올림말을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고 ‘자획 찾기’는 본문에 수록된 한자의 획수에 따라 낱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자어와 외래어 앞에는 각각 ‘+’, ‘×’를 붙여 구분하였다.

‘말모이 원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체제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전 출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원고지 형태의 판식(板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이 혼합된 듯, 고서(古書)의 판심제(版心題)를 본 따 그 안에 ‘말모이’ 라는 서명을 새겼고, 원고지 아래 위에 걸쳐 해당 면에 수록된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모음과 자음, 받침, 한문, 외래어 등의 표기 방식이 안내되어 있다.

1914년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뒤 1916년 김두봉이 이 ‘말모이 원고’를 바

탕으로 문법책인 『조선말본』을 간행하기도 했으나, 김두봉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해로 망명하고 이규영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원고는 정식으로 출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편찬으로 이어져 우리말 사전 간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말모이 원고’는 현존 근대 국어사 자료 중 유일하게 사전 출판을 위해 남은 최종 원고라는 점, 국어사전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사전 편찬 역량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자료라는 점, 단순한 사전 출판용 원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

### □ 조선말 큰사전 원고(조선말 큰사전 原稿)

현 등록사항	명칭	수량	규격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국가등록 문화재 제524-1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8책 (2,204장)	27.0 × 19.3 등	(사)한글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사) 한글학회
국가등록 문화재 제524-2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5책 (1,314장)	27.5× 19.6 등	국유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
미등록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1책 (51장)	26.9× 19.7	김**·김**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 질 : 종이(양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假綴)
- 조성연대 : 1929~1942년 경
- 제 작 자 : 조선어학회
- 사 유

‘조선말 큰사전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524-2호)는 조선어학회(한

글학회 전신)에서 1929~1942년 경에 이르는 약13년 동안 작성한 사전 원고의 필사본 교정지 총 14책이다. (사)한글학회(8책), 독립기념관(5책), 개인(1책) 등 총 3개 소장처에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가 출간 직전 최종 정리된 원고여서 깨끗한 상태라면, 이 ‘조선말 사전 원고’ 14책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집필·수정·교열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손때가 묻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전’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 9월 8일 경성역(지금의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이를 바탕으로 1957년 ‘큰사전’(6권)이 완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철자법, 맞춤법, 표준어 등 우리말 통일사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로서 국어사적 가치가 있지만, 조선어학회 소속 한글학자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우리말 사랑과 민족독립의 염원이 담겨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29년 10월 31일, 이념을 망라해 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육자, 어문학자, 출판인, 자본가 등 108명이 결성해 사전편찬 사업이 시작되었고, 영친왕(英親王)이 후원금 1천원(현재기준 약 958만원)을 기부하였으며, 각지의 민초(民草)들이 지역별 사투리와 우리말 자료를 모아 학회로 보내오는 등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 맞선 범국민적 움직임이 밀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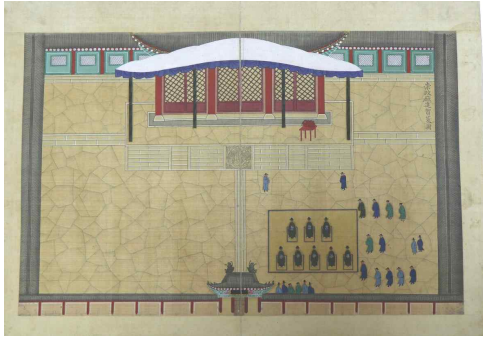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식민지배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이자 언어생활의 변천을 알려주는 생생한 자료로서, 국어의 정립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체이므로 한국문화사와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대표성·상징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국민에게 그 의의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정대상 목록> : 총14책

소장처	연번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 (표지포함)	책 크기
한글 학회 (8책)	1	제3권	1447 -1505	붙다 - 빙다	0011 -0313	274장	27.0 x 19.3
	2	제4권	1890 -1961	시 - 씩	1 -315	318장	27.0 x 19.5
	3	권수표시 없음	2253 -2269	외 - 우측통행	1095-1429	188장	28.0 x 20.4
	4	제5권	2666 -2712	절용 -제밀	0360 -0639	201장	27.1 x 19.9
	5	제5권 5의 7	2803 -2848, 1273 -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 다	0640 -0882	199장	27.2 x 19.8
	6	제6권 (6의1)	3125 -3199	ㅌ - 팀파니	1347 -1746	317장	26.8 x 19.5
	7	제6권 (6의2)	3199 -3298	ㅍ - 핑핑히	1747 -2306	452장	27.0 x 19.1
	8	제6권	3372 -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증]	241 -393	255장	26.8 x 19.7
독립 기념관 (5책)	1	5의 1	1 -240	ㅈ -잡제	0011 -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473의 1 -1667	찌그러지다 -진도바리	0883 -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 -399	척사음음 -청찰	1118 -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 -영다	0704 -1094	334장	27.5 x 19.8
	5	권수 표 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425	330장	27.4 x 20.1
개인 소장 (1책)	1	범례, ㄱ	표시 없음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 」(上中下)	없음	51장	26.9 x 19.7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화첩)



(내함)



(호갑)



(외궤)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 보물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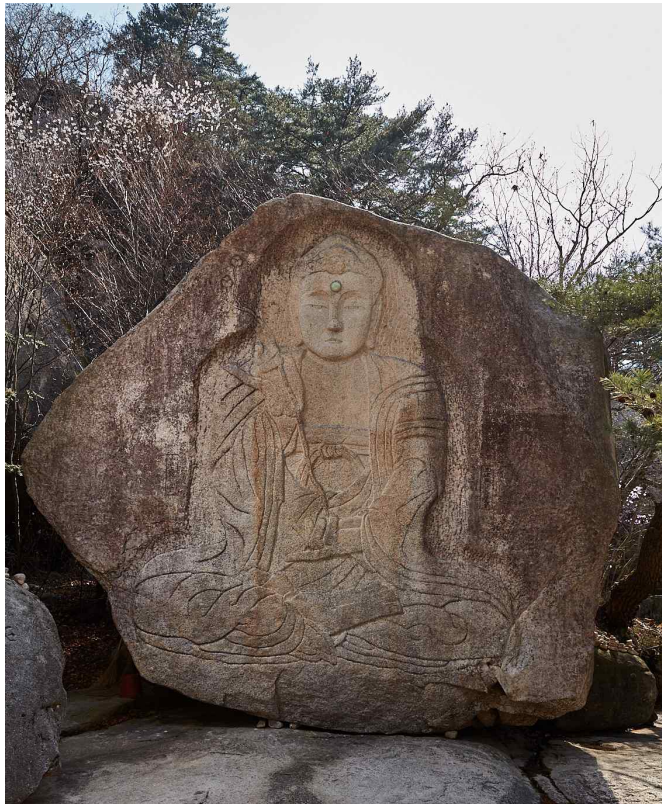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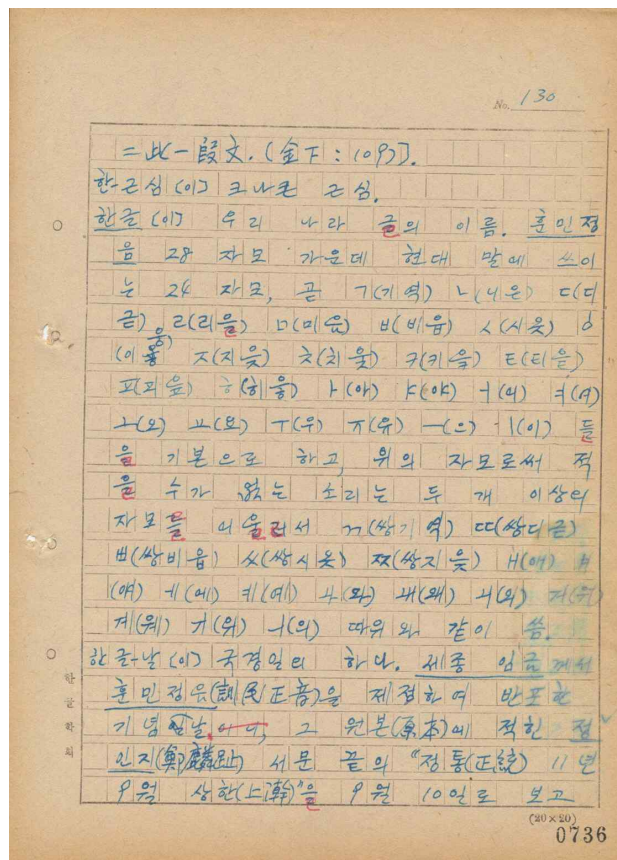
<경진년 연행도첩>



<‘미륵원’명 청동북>



<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